

115 AI 기본사회

AI Basic Society

AI 기술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적극 보장받는 사회

- AI가 공공 서비스와 일상의 전반에 깊이 스며들며, 국민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모델

AI 기본사회란?

'AI 기본사회'란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기술 발전이 곧 포용적 사회를 향한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AI를 단순히 기술·산업 발전의 도구로 활용하던 수준을 넘어, 사람 중심·포편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복지·교육·금융·문화·안전·환경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AI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는 2025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비전 발표에서 공공서비스의 AI 전환 필요성과 함께 강조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공 영역의 AI 활용 확대, 국민 편의 중심 서비스 혁신, 사회적 기반 재정비를 포괄하는 정책적 비전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본사회의 필요성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혁신 도구를 넘어,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재난·의료·교육 격차 등 복합 위기 속에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행정·의료·복지·안전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면 맞춤형 지원, 위험의 사전 예측,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AI 기본사회의 구현

AI 기본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모델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공공서비스 전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부터 변화를 시작해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생활, 사회 안전, 국민편의 등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와 행정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누구나 24시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보편적 AI 환경이 마련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단계적 변화들이 모여 AI 기본사회가 현실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